

# 취약집단 집단감염과 시민사회

주윤정(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목차

---

1. 왜 취약집단이 문제인가?
2. 취약집단 정의/범주
3. 재난시 취약집단 문제
4. 대남병원 사례와 중앙 장애단체
5. 대구지역 확진/격리 장애인과 장애단체의 활동
6. 제언

# 1. 팬데믹 상황에서의 취약집단의 문제

---

- 왜 감염병 팬데믹에서 취약계층이 문제인가?
- 코로나 19 상황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취약계층
- 코로나 19 상황에서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 재난피해와 기존의 취약성의 가중 / 문제의 비가시화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방치되는 상황
- 사회적 약자/ 취약집단의 목소리를 방역체계에 환류하는 시스템의 부재

- 
- 우리 앞에 곧 닥칠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수많은 '사이'의 거리의 재조정과 함께 온다. 그 세상이 보여줄 모습도 결국 '사이'들의 거리와 연결의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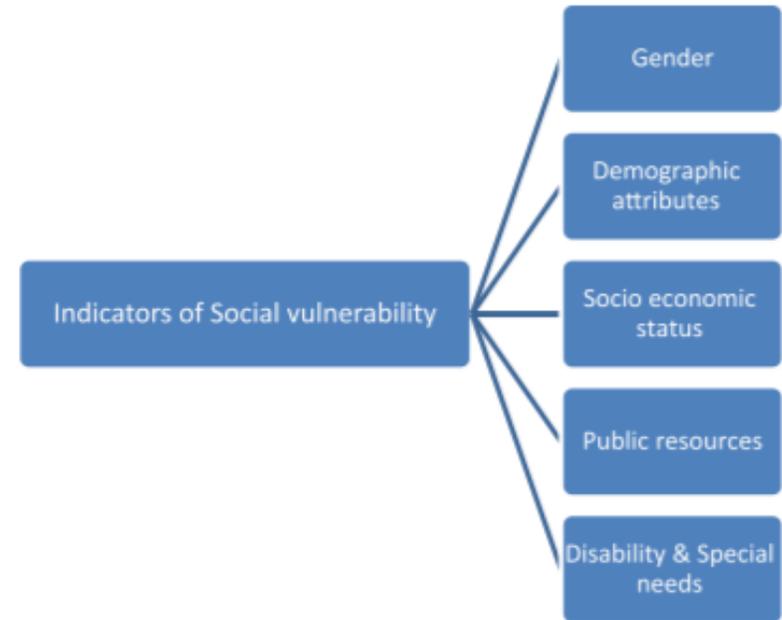
김범준, 경향, 4.22. 사이와 거리

-> 취약계층은 거리와 연결의 측면에서 가장 취약하다. 관계성의 측면에서 재난시 취약계층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취약집단의 정의와 범주

- 취약계층/취약집단 정의
- EU에서도 취약성을 새로이 정의하는 것
- 유엔 기구에서 정하는 취약계층의 범주 (장애인, 이주, LGBT, 노인, 어린이 등)

*F. Fatemi et al.*



**Fig. 2.** Categorizing the indicators of social vulner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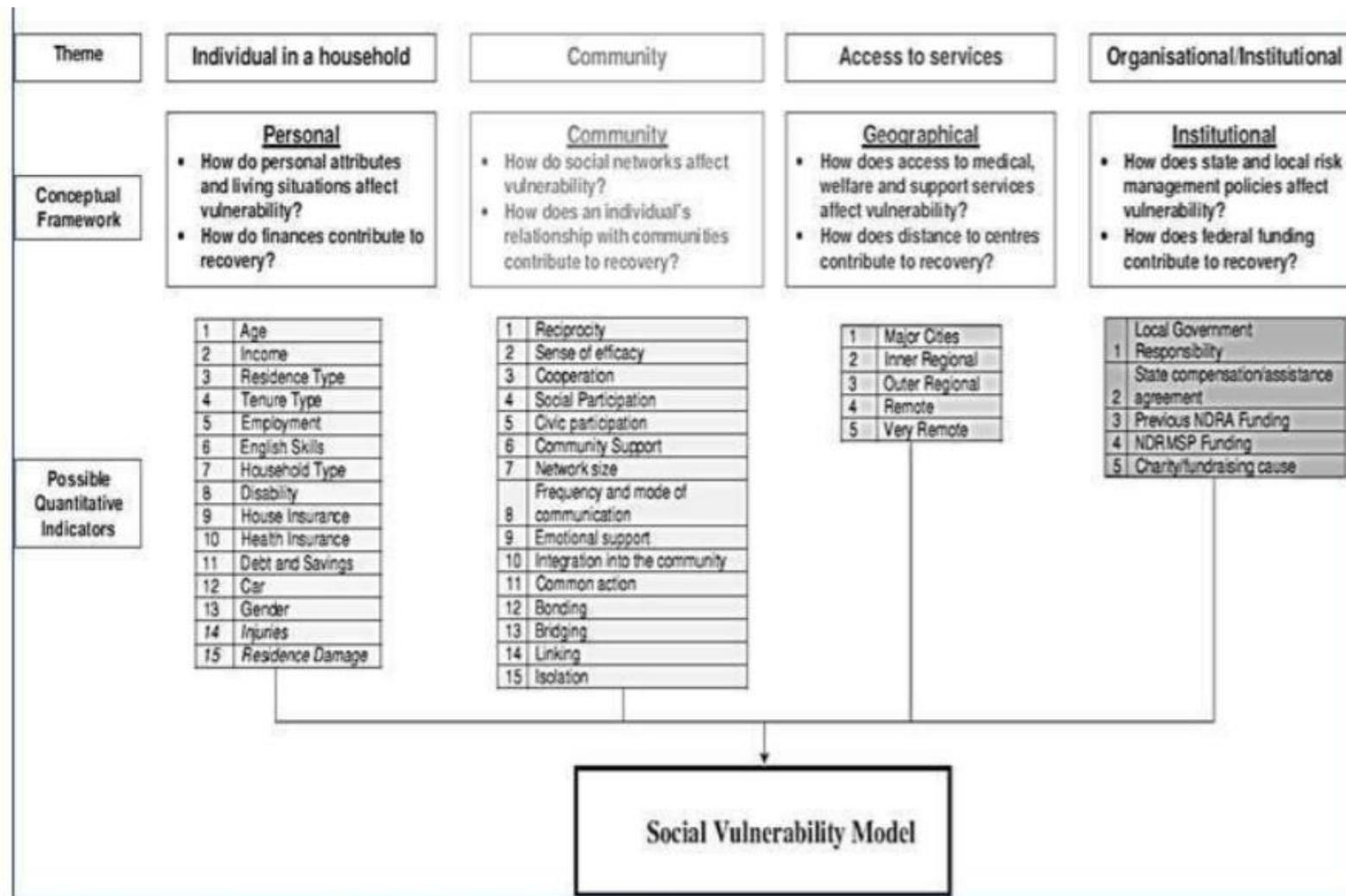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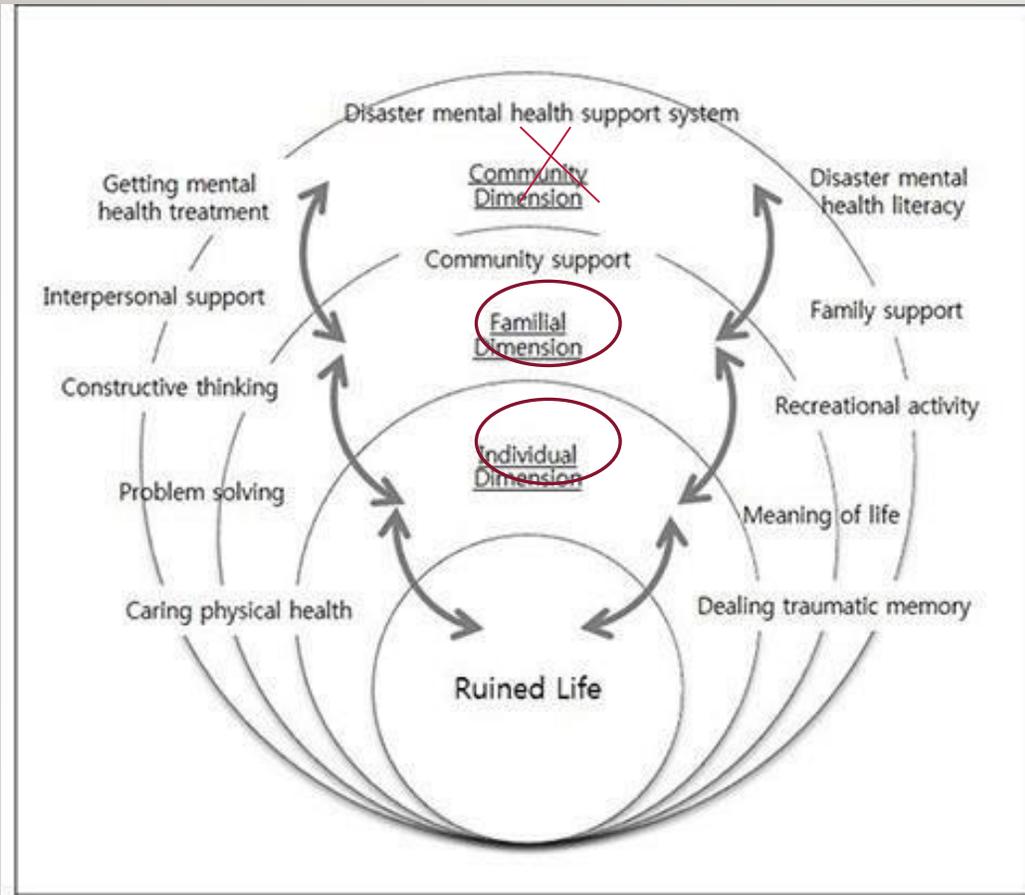


Fig 3: Social vulnerability model (Dwyer et al. (2004:5)



### 3. 재난시 취약집단의 문제

- Disaster Reintegration Model: A Qualitative Analysis on Developing Korean Disaster Mental Health Support Model".
- Choi, Yun-Jung & Choi, Hwa-Bok & O'Donnell, Meaghan. (2018).
- 취약집단의 경우 기존의 사회적 지지망이 붕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소셜 서비스에서 배제, 가족과 개인에 하중이 강화됨

# '코로나19' 제주, 목숨 끊어버린 발달장애 학생과 엄마

최병근 기자 | 승인 2020.03.17 21:12 | 댓글 26

제주지역 발달장애 학생 보육 사각지대 비화

16일 유서 작성후 집나가 17일 주검으로 발견

### 대한민국 자살율 (십만인율)



# "뇌 장애 동생 끔찍히 아꼈는데..." 울산 형제비극에 이웃들 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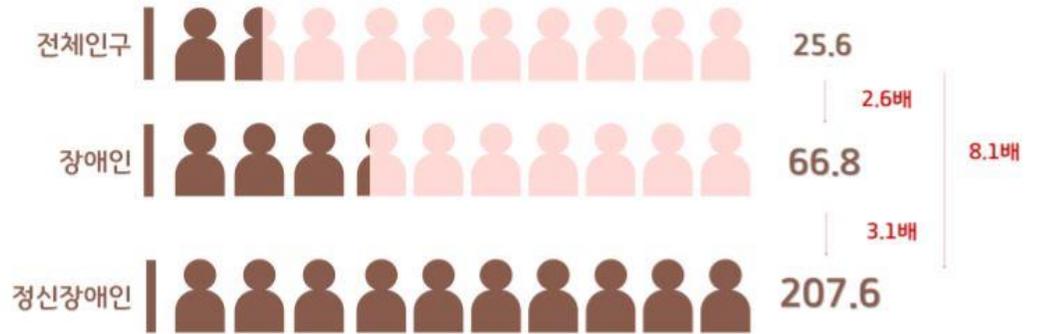
뉴스시스 입력 2020-04-09 15:08 수정 2020-04-09 15:08

아파트 화재로 숨진 9·18살 형제 안타까운 사연  
아버지 사기빚 많아 '더블잡'으로 어려운 생활  
"장례비용이라도" 교육청 자발적 모금운동 전개

SAMSUNG Newsroom

###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률]

(단위 : 인구 10만 명 당)



\* 장애인 2,511,051명, 정신장애인 100,069명 (2016년 기준)

## 4. 대남병원 사례와 중앙장애단체

- \* 대남병원 관련 사망자 7명, 확진자 117명(전체 사망자 13명, 전체 확진자 2,337)
- \* 확진자 117명 (환자 103명, 직원 13명, 가족접촉자 1명)
- \* 대남병원 확진자 중 일부 완치 이후 국립부곡병원 이송
  
- \* 대남병원 관련 사망자(번호는 전체 사망자 일련번호)
- 사망자 1 63세 남성, 19일 사망, 사망시 45kg, 폐렴 소견, 사후검사
- 사망자 2 55세 여성, 21일 확진, 21일 사망, 부산대 이송중 사망
- 사망자 4 57세 남성, 20일 확진 20일 동국대 경주병원 이송, 23일 사망, 기존 중증 폐렴
- 사망자 6 59세 남성, 55번 확진자, 포항의료원 -> 동국대 경주병원, 20일 확진 23일 사망
- 사망자 7 62세 남성, 23일 사망
- 사망자 8 67세 107번 확진자, 경북대 병원 24일 사망, 기저질환 없었음. 호흡곤란
- 사망자 10 58세 남성 25일, 298번 확진자, 사망



# 대남병원 시민사회 사진



-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 장애 관련 단체 성명서 발표
-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이 폐쇄 병동 입원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 얼마나 폭력적인 재앙을 불러오는지, 지역사회 의료시스템이 집단 격리수용 시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

# 대남병원 문제

---

- 취약계층 문제의 의제화 과정 -> 중앙 장애인 단체, 의료/정신건강 활동가들, 기자들의 활동 및 취재, SNS를 통해 정보 공유(뉴스큐레이션)
- 병원내의 열악한 상황 -> 중앙방역당국의 비인지
- 민관 유착 가능성/선별진료소와 병원이 같이 존재 -> 뒤늦은 발견
- 이후 언론, 단체 활동을 통해 정신병원 실상 공개
- -> 방역본부(오명돈 선생님), 인권위원회 조사 통해 정책화
- -> 병원 이송 및 개별 대책 마련
- ->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의사소통, 채널의 필요성

## 5. 대구장애단체 사례와 대구 지역 장애단체

---

- 대구에서는 장애인 확진자 1인의 치료 문제/ 13인 접촉자의 자가격리 문제 발생
- 확진자, 자가격리자, 돌봄 노동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미비
- 새로운 재난적 상황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새로운 practice를 만들어내야 함
- 하지만 이것이 기존의 방역체계로 환류되는 구조가 부족
- 장기화된 방역 상황에서의 문제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복지시설들은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관행적 일을 최소화해서 할 가능성 -> 무책임성 강화. 그리고 사례중심적으로 복지 기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쉽게 알아보는 코로나19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이 자라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국제협력기금 모금 안내] 이탈리아와 독일에 생명의 마스크를!  
"이탈리아 볼로냐"와 "독일 디아코니아 공동체"에 마스크를 보내려고 합니다.  
18일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이탈리아 의사 마르셀로 나탈리는 감염 전 언론 인터뷰에서 "사용 가능한 장갑이 없어서 맨손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더 보기

## 세월호 가족과 4.16연대가 대구 취약주민들에게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온 나라와 세계 시민들이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대구에서 주민들은 감염의 공포와 고립감 속에서 병마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온 세월호 가족과 4.16연대가 대구 주민들, 특히 장애인, 이주민, 쪽방촌 어르신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 1.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 모금 계좌 : 우리은행 1005-103-430634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1) 기금 목적
  - 대구 장애인 단체와 이주노동자 단체, 쪽방촌 주민을 위한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 선별 진료소 의료진과 자원활동가를 위한 응원물품 구매
- 2) 전달 방법
  - 물품은 세월호 가족 손편지와 함께
  - 세월호 가족과 대구 4.16연대가 직접 전달
- 3) 모금 방법
  - 3월 6일까지 1차 모금 진행
  - 목표액 1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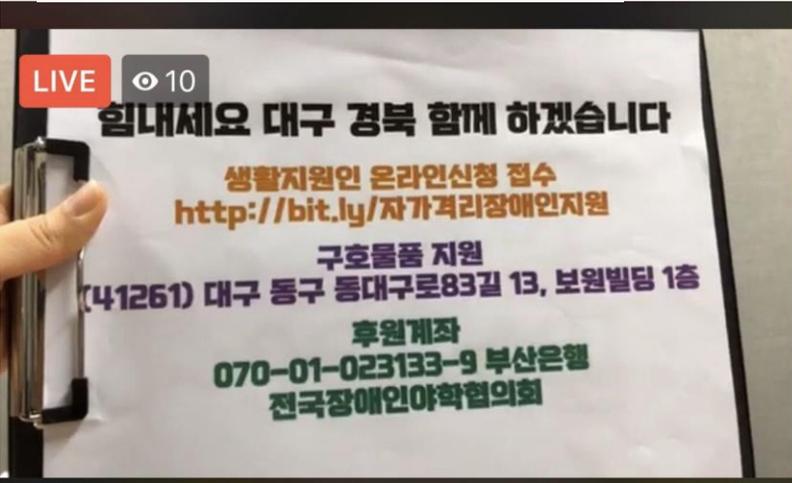


### 2.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 모금 참여와 함께 설문양식에 따라 응원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 참여하기 <http://bit.ly/대구긴급지원>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 약속 지키면 더





- 장애인에게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블랙이다.
- 지원체계가 붕괴되면서,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 응급시 2천만원 정도를 모금하여 방호복 지급(활동보조인)
-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체계를 정책화할 수 있는 방법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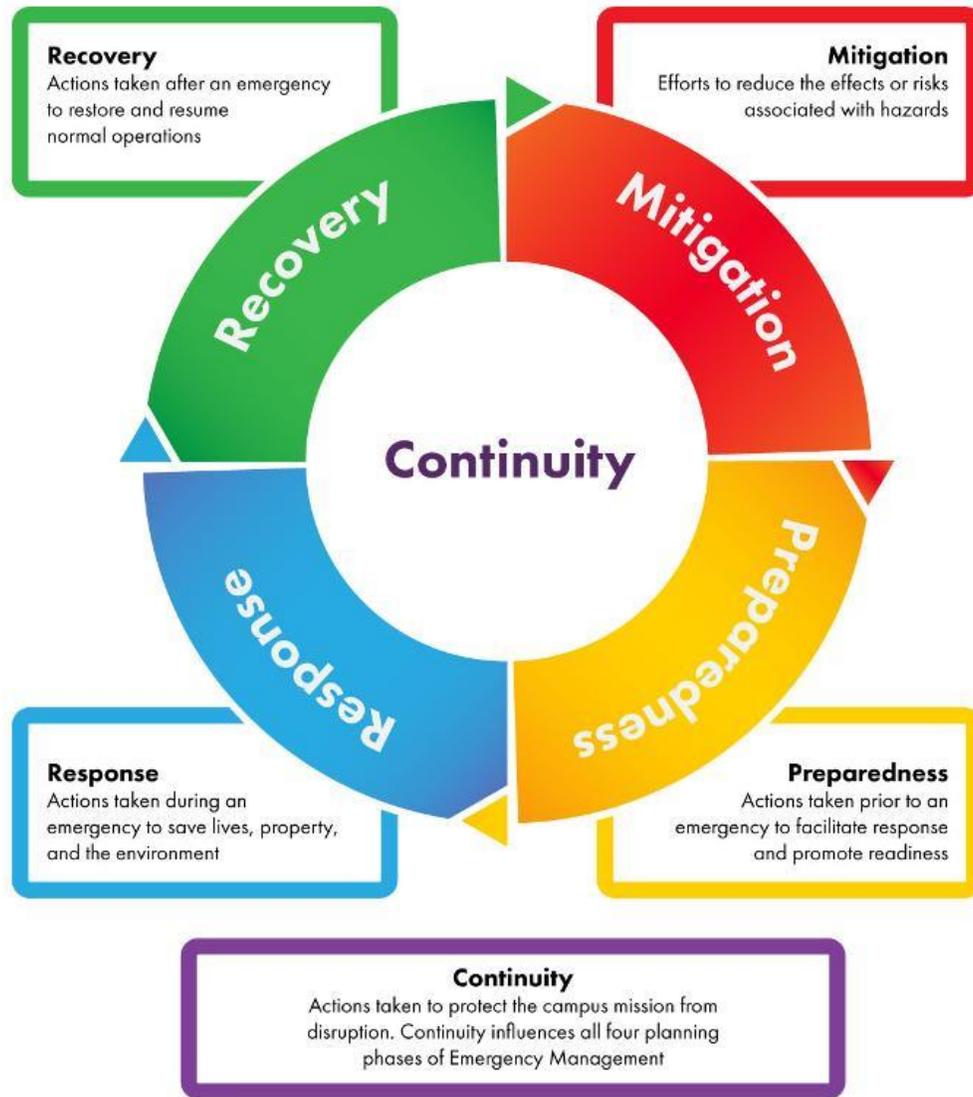
## 6. 제언

---

- 방역 영역에서 취약집단의 개념화, 가시화
-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성을 지표화(Indicator)/정책화
- SNS를 통해 다양한 사회단위들의 협업, 집단지성을 발휘, 이런 새로운 사회운동과 연결방식 고민
- 취약집단 등의 문제를 중앙의 방역체계에 가시화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의 수립필요
- 방역상황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가는 상황. 기존의 법제도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시민사회에서 행하는 새로운 practice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이후에 제도로 환류될 필요성
- 취약계층과 관련된 practice들이 환류될 수 있는 문제발견-회복-완화-예방의 과정

장기화에 따른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  
조정(사례관리  
중심으로 사업 방향  
조정)

취약집단 돌봄  
방역/치료



재난시 취약집단 문제  
파악 및 해결

취약집단 특화된  
방역지침, 가이드라인  
정책 마련